

敬言民篇

全

卷

敬言民篇

卷

關西是箕聖故都而聖教既遠民俗漸頹名為
士子者近雖稍稍向學能知禮法而至於愚民
則敗倫犯常之事間多有之余以承流宣化之
任今方自反深訟而謹以八條之遺義作八戒
附于警民篇之末以警西土之愚民

관서노이귀즈의 빛도업이라 성인의 마르치
심미임의 멀고빅성의 풍속이 점점 문허디여
패류범상하노일이 간간이 만히이신 이내흐르를
닛고화를 쳐노소임으로 써이제 비야호로스스
로도호허김피 슬허하며삼가으려가지 도목으로

이름대로는 고녀히너기논밭재지를

이니스스로그런성을멸하노는도

男女之欲

婚必以媒

即人大防

奸則有刑

唉西之民

何責禽獸

或事強奪

自觸刑辟

스나히와계집의욕심은곳사육의큰

방한이니라흔인하를반드시등미로

써하고음간하면곳형벌이잇나나라

슬프다셋씩씩형이여후강인하야앗

기을일삼노도다엇디새즘성을척강
흐리오스스로형벌파죄예걸리이노
도다

重本尊祖

叛主或諱

豺獫不昧

爭財或冒

啖西之民

彼蚩蚩者

胡寧忍此

曷比人類

근본을등히너기고하나비을노피기
노일히와슈달도어돕디아니흐도다
항것비반흐니논후곰초고저물드도

니 노후 무릅쓰는 도다 슬프다 셋씩

성은 엇더치마이로 노고 터치치호

놈들은 엇더 사람의 늑에 비기리오

婿為外人

分亦宜讓

豈比子姓

專又何競

唉西之民

臨喪披髮

惟利是貪

使人大慚

사휘라 호는 거스 받 사람 이 되느니 엇

더 성은 손의 게비 길어 시 리 오 노 화 도

도 서 양 호 이 맛 당 호 거 너 오 온 들 도 엇

디느 돌러시 리 오슬 프다 셋트 빅성이
여 오직 이 니를 탐호는 도 상 스을 남
호여 머리을 헤티 기는 사름으로 호어
곰크게 붓그립 도다

民於官長

過亦宜諱

曰為父母

冤不越訴

嗟西之民

直固宜罪

矢口無憚

誣豈偉道

빅성이 관당의게 논 큰 온부 외가 호는
도다 허물도 도 호고 회호 미 맛당 호니

원익응여도깃너하디 못흐는存다슬
프다섯씩씩성이여입을쓰와허리는
거시업在다발나도진실로죄함이맛
당흐거든거긔기시면엇디다행이면
응리오

凡民好訟

得或錙銖

利小害巨

失輒刀鉅

嗟西之民

目以非理

何樂於此

寧不知恥

물잇씩씩성의송소를도화함이니노크

고해는크도다엇는거손후치쉬오일
흐면은두도게로다슬프다섯씩씩성
이어어이하야이를즐기논고비리라
쉬는주느니엇디부러움을아디못
하노다

農為大本

浮游奸蠹

外是皆末

倖不萬一

嘆西之民

亟反南畝

胡失其業

以力吾穡

농소노큰근본이되느니이밭근다섯

티되노도다셔늘고관사로이즘히오
문요형흥미만에흥나히똥되이노도
다슬프다섯씩씩형기여엇디그업흔
바를일헛노고셀리남씩이랑에도라
와셔내가식을힘쓸셔어다

警民編序

夫制為刑法也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以不有以道足於先_오이執法而論因_은不樂於罔民乎_아余自叨分陝憂_은按所部_야察民風_는每當斷獄_야未嘗不深喟於斯_나上_호蠢愚之民_이不知人倫之重_은이_어焉知制法之詳_이리_니蚩蚩然有同乎瞽聵_야實實焉惟衣食之趣_야自不覺其觸犯科條_야流陷於罪辜_는은_이有司_이於是_에按律繩之_면如罾羅捕雀_이機檻取獸_나鳥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_오리_니余為之悶然_야舉其最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為十三

條○編曰警民○刊行廣布○俾諸蠢氓○靡不

習於耳目○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為編言

必推本而舉理者○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

引法而叅訂者○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語

簡而辭俚者○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將是

編○歸之文具○付之迂遠○坐食公廩○玩愒歲

月○其於道民化俗之道○若不盡心而致誠焉○

殊非編者之意○凡我牧民者○尚亦念哉○

正德己卯春觀察使義城金正國書

그형벌과法법을밧고그몸은다밧고금의밧쳐고

량호시호어딘口음으로쉬낫느니배몬죄인도
호미잇디아니호고法법만자바죄롬의논호면
빅성을소기매갓갓디아니호라내외람히陝섬
근심을논화맛디심으로브러이제감맛든사흘
안호호여빅성의풍속을슬필시미양죄인결단
호기에當당호야일즉이예기피애드라아닐적
이업느니무디호고어린빅성이人倫부조신
부부당유봉의重등호줄을아디못호거든엇디
우오호나라의重등호줄을아디못호거든엇디
법제의스쉬호물알리오미린호미는멀고귀머
그니마르며무디히오적옷과밤의드라드리스

소로그법에범음은줄을섞듯다못하야죄예흐
리싸디거든판원이이예법을자바다스리면그
물로새를잡으며함정으로도증성을잡음곳드니
어디그빅성으로하야곰인딘디로올마죄예말
게호미이시리오내為위하야민망이너져그
장사롬의도리에관계하고빅성의犯범대쉬온
거슬드리열세도건을하야일음을빅성정계하
논척이라하야남기사겨너비베퍼미혹훈빅성
으로하야곰귀와눈에니기타아니비엄계하야
대그사오나오물비리고어딜물쫓기예萬만一

일이나 호미나 바라노니 책을 빙글기를 반나서 근
본을 이르며 도리를 들어니 롬은 빙성이 감각發
발호야 興흥起起의 흥이 잇파다 호미오 法법을 쉰
참증호야의 본호문 빙성이 저히 두려 죄를 避피
호줄을 알찌 잇파다 호미오 알슴이 간략호고 글
을 상탐으로 호문 빙성이 비호다 아나 호야도 알
기 쉽고 다 호미니 이 책을 가 저 文문具구에 도라
보내며 透오 遠원 호디 브티고 안자 저나라 녹만
나그며 세일을 누노라 디내고 그 빙성을 하도호
풍속을 감화케 호드리 예모음을 극진히 호며

정성을 본 위리 아니 하면 못이 척링근의 뜻이
아니니 물윗우리 북성다스리 논차름은 거의 노
훈님티훈이 되어다

正德 德 大대 明명 武무 宗宗 己己 卯卯 我我 中中 宗宗 大대

四 年 年 春 春 觀 觀 察 察 使 使 入 入 義 義 之 之 城 城 正 正 德 德

國 國 書 書 齋 齋 正 正 德 德 國 國 字 字 禮 禮 國 國 字 字 禮 禮 國 國 字 字 禮 禮

卯 卯 各 各 名 名 也 也 矣 矣

人 人 也 也 矣 矣

敬言民編目錄

父母

夫妻

兄弟姊妹

族親

奴主

鄰里

閩毆

勤業

諸積

思齋金正國著



敬言民編目錄

詐偽

犯奸

盜賊

殺人

附

仙居勸諭文

潭州諭俗文二

泉州勸諭文

泉州勸孝文

訓民歌十六

警言編目錄終

敬言
○民編
편

思齋金正國 著

父母모勞司一일

父如天_하時_시母如地_지다 敬勞生我_나辛勤乳哺_하시
 艱難養育_하時_시父母恩德_은 昊天罔極_하 是故_로善事父母_를
 生我父母_를時_시與父母無異_라 是故_로善事父母_를
 孝順無違_하 鄉里稱善_하 國有褒賞_하 一_일 法_法에 祖
 父母의 父母를 謀殺則凌遲處死_하 毆打則斬_하 罵
 詈則絞_하 不聽教令_하 不謹奉養則皆杖一百_하 父
 母를 告訴則其罪至重_하 守信繼母_를 與親母_로

同_하 法_法

敬言民編

아비노할논근트시키고어미노하근트신다라슈
 고로이날을나흐사괴롭고브즈리너젧어기시
 며갓가스로갈러내시너父母母모의은혜와덕
 은할논근트고이업드나祖조父母母모노내父
 母母모를나흐시너父母母모로더부리다르미
 업스나라이런故고로父母母모를알섬겨도도
 호고슈하야어괴음이업스면모은상를도어디
 다일쿠르며나라히셔드조장하아賞賞흥에잇
 누나라**國**법에祖조父母母모와父母母모로주
 기물희하면次次遲의國國어초...

티면목버히고仔지_지면絞_絞교_교기미_{기미}라_라주_주고_고고_고
 르치고시기_기논_논일_일을_을듯_듯디아니_{아니}하_하며_며奉_奉봉_봉養_養양_양을_을
 기_기를_를삼_삼가_가아_아니_니하_하면_면다_다杖_杖杖_杖一_一일_일百_百외_외하_하고_고父_父부_부
 母_母모_모를_를구_구의_의예_예할_할면_면罪_罪되_되지_지극_극히_히重_重중_중하_하니_니라_라슈_슈
 절_절호_호繼_繼계_계母_母모_모는_는親_親친_친母_母모_모로_로디_디브_브리_리호_호가_가자_자니_니
 라

夫부妻妻처_처弟_弟태_태二_二이

夫妻_{夫妻}는_는結_結緣_緣야_야百_百年_年同_同居_居하_하니_니夫_夫須_須念_念妻_妻고_고妻_妻須_須順_順
 夫_夫雖_雖有_有不_不協_協도_도이_이라_라夫_夫益_益忍_忍怒_怒하_하妻_妻益_益致_致順_順하_하야_야家_家
 道_道不_不敗_敗하_하리_리是_是故_故로_로夫_夫妻_妻和_和樂_樂하_하면_면永_永保_保厥_厥家_家고_고乖_乖

戾不和_고終致禍亂_고 **法**에妻_고謀殺其夫則凌
 遲處死_고 毆打則杖一百_고 重傷則絞_고 致死則斬
 背夫則杖一百_고 目而改嫁則絞_고 夫之祖父母
 外父母_고 毆打則斬_고 罵詈則絞_고 告訴則杖一百
 徒役_고 夫之族親尊_고 杖_고 毆打罵詈則其罪至重_고
 他夫潛奸則杖九十_고 背夫改嫁則絞_고 夫_고 毆打
 其妻_고 致死則絞_고 重傷則亦皆有罪_고 妻父母_고
 毆打則杖一百_고 折傷則加等_고 篤疾則絞_고
 身_고 年_고 分_고 을_고 미_고 자_고 百_고 外_고 年_고 分_고 을_고 準_고 되_고 사_고 느_고 니_고 지
 아_고 비_고 노_고 모_고 로_고 미_고 계_고 집_고 을_고 권_고 빚_고 고_고 계_고 집_고 은_고 모_고 로_고 미

지아비를 순종하야 비록 맛곳디 못하미이실찌
라도 지아비논디 옥怒노를 참으며 계집은 티옥
順순호를 본위에 야家가 도도 | 敗패티아니하
리니 이런故고로 夫부妻처 | 和화樂락하면 기
리그집을 보전하고 버거여 티和화티 못하면
침내禍화과亂난을 본위니라 **法**법에 계집이
그남진을 섬하야 주기면 凌능遲디處처死스하
고 티면 杖杖一일百백하고 重중히 傷상하면 絞
絞하 고 죽기 예니 르면 斬참하 고 지아비를 비반
하면 杖杖一일百백하 고 因인하야 改기嫁가하

면絞교호고지아비祖조父부母모와父부母모
 를리면목버히고저지스면絞교호고삼교호야
 할면杖당一일百빅도뵈년귀향가고지아비권당
 어를을리거나저지스면그죄지극히동호고다
 른남진을潛呑奸간호면杖당九구十십호고지
 아비를비반호고改기嫁가호면絞교호며지아
 비그계집을러주금애니르면絞교호고重동히
 傷상호면佐호다罪죄이시며妻처父부母모를
 리면杖당一일百빅호고브르러傷상호면죄를
 더주고동호병이되면絞교호니라

兄형弟曰姊下妹의弟曰三삼

兄弟姊妹之與我同出於父母也同氣而異體

骨肉至親也無如兄弟也無知之人也爭小利害

鬪爭不和也遂為仇讎也與禽獸異擇也

兄須愛弟也弟必敬兄也無相疾怨也殺口奴婢也

有時而逃亡病死也數畝田地也有時而川反浦落

也終歸無益也兄弟姊妹也相殘不和也鄉里皆

斥也國有常法也據執合幸則杖一百徒役

不和則杖八十也兄弟姊妹也罵詈則杖一百

毆打則杖九十徒役也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

고 篤疾則絞 故 告訴則杖一百 故 杖

형과 아오과 못누의 과 아오누의 논발로 더 보러

훈가지로 父母母모더쉬나 시나 귀운이 훈가지

오얼골만 다르니 骨골肉육의 지극히 親친 훈이

兄형후테 마득니 업거늘 無무知디 훈사람이 姪

고만 利니며 害해를 드도와 姪孫하며 不불 和화

하아드디여 仇구 讎슈이 되니니 憎싱으로 더 보

러어이다 르리오 兄형은 모로미 아은 사랑하며

아오 논반 드시 兄형을 공경 하야 서록의 위하며

원티 말을 쉬니니 두어 귀奴 노婢 비논 잇다 감 逸도

八
 田田地地디디노노잇잇다다감감川川천천反反번번
번말말의의쿠쿠두두티티호호거거
 나나개개낙낙대대간간말말의의벼벼리리호호이이이이쉬쉬다다참참내내無無우우참참익익
 호호티티도도라라기기거거니니와와兄兄형형弟弟테테와와姊姊不不妹妹미미쉬쉬르르
 잔잔해해능능야야和和화화티티못못호호면면말말은은히히다다비비척척능능며며나
 라라히히도도응응당당호호法法법법이이잇잇는는니니라
 거거갈갈능능야야가가지지거거나나모모도도가가지지거거나나호호면면杖杖당당一
 일일百百보보도도년년귀귀향향가가고고不不불불和和화화호호면면杖杖당당八八팔
 수수십십호호고고아아의의과과아아의의누누의의라라서서형형과과모모누누의의들
 쉰쉰지지즈즈면면杖杖당당一一일일百百보보호호고고티티면면杖杖당당九九구구十十

십도된 귀항가 고重등히傷상제하면杖_一일
百_百백全_全전家_家가八_八입居_居거가고등_等은병_病이되면絞_絞
코고구_구의여하쇼_쇼썩_썩리면杖_杖당_當一_一일百_百백_百은
니라

族_族족親_親친第_第四_四人_人

三_三寸叔_叔父母_{父母}上_上與_與我_我父母_{父母}同_同出_出於_於一_一人_人故_故시父母_{父母}
如_如等_等三_三寸姪_姪及_及女_女上_上皆_皆我_我同_同氣_氣之_之所_所出_出也_也與_與吾_吾親_親
子女_{子女}三_三無_無問_問也_也自_自四_四五_五寸至_至七_七八_八寸이雖_雖有_有親_親疎_疎遠_遠
近_近之_之異_異也_也皆_皆是_是一_一人_人之_之子_子孫_孫也_也比_比如_如木_木也_也同_同根_根而_而異_異
枝_枝也_也比_比如_如水_水也_也同_同源_源而_而異_異也_也以_以須_須愛_愛敬_敬尊_尊長_長也_也撫_撫恤_恤

卑幼하母相鬪爭라이니 **法**에三寸叔父母를罵詈則
杖六十徒後고毆打則杖一百徒後고重傷則杖一
百全家入居고篤疾則絞고故殺則凌遲處死고告
訴則杖一百고其餘族親이互相毆鬪不睦한親疎
分揀하差等治罪하尊者는減等고卑幼는加等고
라니

三寸寸촌아주버이노내父부母모와훈사들의
게로더나겨시니내父부母모와갓고三寸寸촌
족하와밋필티는다내同동氣의인배내親
친子녀와간척이업고四寸五寸촌으로

북터七칠八팔寸촌에너르히비록親친하며疎
소하며멀며갓가오미다르미이시나다흔사름
의子不孫손이라남과比비전대블희흔가지오
가지다름이며물의比비전대근원이흔가지오
가래다름이니모름이어론을스랑흔야공경흔
며늦고어린이를에엿비너겨쉬르싸호고드도
더말을섞니라^法법에三삼寸촌아자버이들부
지스면杖杖六육寸십도턴귀향가고티면杖杖
一일百백도턴귀향가고重重히傷상케흔면杖
杖一일百백소전家가八입居거흔고등호病병

이되면絞고고 짐짓죽기면凌능遲디處死
고고 구의예할면杖당一일百백고고 나무
권당이신르터싸화화목디아니고면親친고며
疎스고니를分분揀관고야등수를다르게고야
治디罪죄호디놈고어룬으란등수를틸고고
저므니란등수를터으니나

奴노主주第디五오

奴主는有君臣之分情事之盡誠也母或違逆法
에家長을謀殺則凌遲處死고毆打則斬고罵詈則
絞고告訴則杖一百徒役고家長의族親을毆打

罵罪도야其罪至重라하니

종과 항것과 논님금과 신하의 분분이 인본니 섬
기기를 정성을 다하야 조곰도 어긋로며 거스리
디말을 허나라 **法**법에 항거슬 허야 주기면凌
능遲디處처死스하야 고항거슬 티면斬참하야 고
지스면絞絞하야 고 구의예 할면杖杖一일百백도
넌 귀항가 고항거스 쥔레 권당을 티거나 쥔지
도 그罪죄지장重重하야 나

鄰鄰里里니第테六六호

鄰里호與我호로同住一處호有無相資호며患難相救

同義同親戚이 母侵暴殘弱이 母凌辱尊老이 交相
委曲이 務為和睦이 鄰里不和이 患難不相救이 死
亡不相扶이 相為仇隙이 終致不測이 니 **法**에 豪強
之人이 侵損於民이 全家入 居이 卑賤之人이 凌犯
尊屬이 亦皆有罪이 니

隣比里니 是날르디브리하구 지로하디 쉬살아
인는것업는거슬러 주리하디 患難난의쉬
러 救구하니 分의 권당又트니 라 殘잔弱약하니
를 침노하야 보게디 말며 어론이 떠늘근이 를 凌
능辱을 하디 말고서 르 판곡히 하야 힘써 和和睦

무호호니미호호히和化티못호호면惠환難반의서
르救구티아니호호며죽으며서르들보디아니호
야서르원슈힘극이되야르침내不測추호일
에닐위니니라**法**법에豪호強강호사름이빅성
을침노호야해호니니호全전家가八입居거호
고호고賤천호사름이놈호어른을입슈이너겨
침범호면도호다罪죄잇니니라

鬪투敲구第타七칠

六哉與人鬪敲一有害而無益나人雖以橫怒로加
我我復以和悅로待之나雖有強暴之人이歐傷

我體_아攘奪我財_도勿與較爭_고必告官司_야辨正
 於人之死生_이在於頃刻_나不忍片時之忿_야下手
 傷殞_면終致無窮之悔_라나 **法**에 毆打則答三十_고致
 傷則答四十_고拔髮則答五十_고出血則杖八十_고
 折一齒一指_아眇一目_나이 어 毀耳鼻_아以穢物_로灌
 口中鼻內則杖一百_고折二齒以上_나이 어 墮胎_나이 어 刃
 傷人則杖八十徒役_고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_수
 里_고回而致死則絞_나라

대강 혼디 사름과 더브리 싸홈이 싹해로 오미 잇
 고 유익 홈이 업스니 사름이 비록 아니 흘려 노로

배내게티을디라도내모로미和悅열호기로
 배디답호며비록強강暴포호사름이이쉬내몸
 을터히야브리며내지물을아사도터브리결위
 드도디말고반드시구의에쓰고호야辨변正정
 호라사름의死스生성이쥐근탓스이에인느니
 호배에노호오를참디못호야손을디허傷상치
 나죽거나호면口呑내無무窮궁호니오참이디
 나니라 **法**법에티면삼티三삼十십호고傷상호
 매니르면삼티四스十십호고머리터럭을싸이
 면삼티五오十십호고피나면杖杖八팔十십호

고흐니며스팔흐나가락것거나흐눈을멀오거나
귀며코흐음야브리거나티리온거스로배입가
온대며코안히브으면杖 땅一일百백흐요두니
로배우홀디거나빈주식을디오거나늘연장으
로사름을傷상흐요거나흐면杖 땅八팔구십도
년귀항가고등흐병이되기에너르면杖 땅一일
百백流뉴三삼구전로니흐고인흐야죽으며너
르면絞고흐나나라

勤근業업第第八팔

大抵窮餓丐乞者一皆是不勤業之人이耕種을頑

旱川風霜이可畏오 除草을 須勤히 草茂則害苗川

라 雖片地陳荒도이 強勉起耕이 當春夏之時하 雖

似勞苦하 秋成收穫이 倍蓰於他家하 凶年이 不能

害하 人雖飢餓流離하 我則飽煖安逸하 率歲無憂

情하 法에 情農이 不勤服田하 陳田을 皆收其稅하

守令이 考察論罪하 不特農家하 為然하 蠶織工

商之人도 各勤其事하 毋少怠惰하 衣食周足하

人無恒業하 游手游食하 我雖不為盜賊하 人心

以盜賊로 指我하 有時陷於罪辜하

대강 혼디 가난하야 글머丐개乞甚하노거시다

이 소업을 보지런이 아니 하노사름이라 브림 하
기를 모롬이 일즉이 흘려니 브림과 쉬리가 히 두
럼고 미기를 모로미 보지런이 흘려니 풀이 기으
면 곡식을 손해 하느니라 비록 조각만 흘려 히 무
게 쳐도 힘 배起기 쟁경 흘려니 봄과 티롬 소이 예
다드라 쳐노 비록 고바고로 온듯 하느니 고은히 거
두노 거손 노의 게 쳐 비 비 하야 凶 흉 年 飢 이 능
히 손해 터 못 하야 사름이 비록 굶주려 流 離 니
흘려라도 나노 비 브르고 텅고 편안 하야 히르미
출근심이 업느니라 法 법에 게 이른 농 부 밭 팔 호

기름보프런이아니ㅎ면무근턴더를다그구실
을거두고守슈令팅이考고察찰ㅎ야罪죄를주
느니라ㅎ갓티름지이ㅎ노집이그럴뿐이아니
라누에치며질삼ㅎ며형팅ㅎ며당스질ㅎ노사
론도각각그일을브프런이ㅎ야조곰도게을리
마라사옷과밥이周쥬문쪽ㅎ느니사람이상해
ㅎ노소업이업서손을노로며놀고머그면내비
록盜도賊적을아니ㅎ나사람이반드시盜도賊
적으로배날을지목ㅎ야잇다감죄예싸디느니

라

儲日積耳第卅九子

農家一無遠慮叶秋收之後叶恃其穀賤叶姑息放

心叶醉飽朝夕叶釀酒作餅叶濫用殆盡故叶春夏

農務之時叶必告飢窘叶未得力業叶一叶瓶之酒

斗數器之餅叶可活一朔叶秋冬叶搏節儲積叶深

歲不費叶以備農糧叶安東之人叶是今秋叶收穫叶

明年春夏所食叶計除堅歲叶餘穀叶搏節喫破故

農不失業叶雖遇凶荒叶不患飢餓叶北道之

人叶是秋成叶即時濫食無節叶不用升斗叶作餅炊食

朝飽不計夕飢故叶一遇不稔叶餓殍相望叶

深思利害야務為儲積라**法**에濫費會飲이亦有罪

馬라하니

덕림짓는집이먼힘이업서그을거든後후에그
곡석賤친흥을미더안족으로모음은노화朝도
夕석의비브르기를取취하여슬빛고석민드라
남잡히쓰기론거의다함모로봄파덕림의덕림
지이힘받배예반드시주리고寤군호매꿈고
와덕림지이도힘배못하니하瓶병슬과두어
그뜻덕이가히하들은살שר이라그을피더은하
樽존節절하며儲티積積하야기피간슈하야허

비티아니호야비티로니지을양식을을출셔나라
安東동사름은을고을히거둔거스로明明年
틴봄과티로머글거슬헤아려구디간슈호고남
은곡석으로搏존節절호아머그모로농뵈소업
을일티아니호야비록凶흉荒荒을만나도공주
리기를근심티아니호고北북道도사름은츠희성
에卽즉時시헤피먹기를無무節절히호야되와
말을쁘디아니호고혁딘글고밤져어아침의비
브를션정나죄비곰흔들을헤아리디아니호노
故고로호번티로도티아닌서글만나면주려주

그리쉬르니엇느니刹니흥며害해로오물기피
싱각흥야힘배儲티積積을흥너니라 **法**법에남
잡히허비흥야못刁지흥야슬터기흥이佐흥罪
죄잇느니라

詐사偽위第拾十집

凡事를復務誠實고不謀詐偽니詐偽之事는終難
掩覆야必陷於罪辜라니 **法**에詐偽官文書者一重
則杖一百流三千里고輕則杖一百徒後고文記偽
造則杖一百徒後고印信偽造則斬고詐稱官差則
杖一百徒後고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禁則杖一

百口誣告則反坐其罪なり

물잇일을모름이誠성實실함이를힘배하고간
사흔거짓일을써하디말을써니간사흔거짓일
은口증내그리오고뜻담기어러워반드시죄에
빠드나니라法법에구잇文문書셔간사히거짓
것흔者자一重중하면杖杖一일百百三삼주천
로니귀향가고輕경하면杖杖一일百百도년귀
향가고文文記記기偽위造조하면杖杖一일百百
도년귀향가고印인信신을偽위造조하면斬斬
하고거짓글官官差차로라하면杖杖一일百

백도면귀향가고거듯거슬時시任임판원의子

不第티며종브리로라고고작작變페고면杖_三

一은百백고고거듯일을삼고고면二罪죄로反

반坐좌 고고여남히려고면적고고니라

犯범奸간第_三의十십一일

男女情欲이易熾而難防이所當謹慎者一莫如奸

事位小不忍則終陷不測이니法에和奸則杖八十

고有夫女和奸則杖九十고強奸則杖十二歲以

下幼女를通奸則亦絞고親屬相奸면切親則死罪

외疎親則以次減等고強奸外에其餘奸事는男女

一皆同罪하느라

스나희와겨집의욕심이바라나기쉽고막후르
기어려온디라맛당히삼갈배음간하노일기트
니업스니저근덧참디못하면只참내츙량티못
흘디싸디느니라 **○**범에和화奸간하면杖笞八
팔十십하고남진인노계집을和화奸간하면杖
笞九구十십하고우김질로통간하면絞絞하고
열두슬로척아리로어린겨집을通通奸간하면
絞絞絞교하고겨레권당으로셔서르통간하면
갓가온권당이면죽을罪죄오면권당이면차차

로 죄 죄를減감하고 강강奸만하니 벗과그남은
음간호일은은스나회와거집이다罪죄호가지니
라

盜도賊적第卅十집二이

人之為盜賊이皆出於飢寒也寧丐乞存命이언

勿為偷竊強奪也盜賊之人이卧席終身者百無

一人이乞得食은雖似羞愧也終無慘禍也

橫得財物也飽食煖衣도不多時에囚繫拷掠也痛

楚辛苦也敗家滅身也有何所益也法에竊盜

杖六十也賊多則杖一百絶島為奴也初犯則右

臂刺字고再犯則左臂刺字야絶島永屬為奴고三
犯則絞고盜官物則加等고強盜는不分首從皆斬
나
나

사롬의盜도賊적되오미하주리고침기로셔나
나니출하리비러머거목숨을보존호려언령도
적질함여우김질로앗기를말라盜도賊적함던
사롬이돛괴누어몸을막치리百백의셔함사롬
도업나나라도나며비러어더먹기논비록붓그
러온돛함나막춤내참혹함화환이업거니와財
지物물을橫횡得득함야비블리먹고덤게남을

티아니코다목비히니라

殺生人인第卅十집三占

人命이至重가彼我無間이暴惡之人이或回貪

財가或回讎怨가暮夜無人之中에潛行殺害가自

以為得計가上天이臨下孔昭고鬼神이在傍

小이早晚發露가必蒙殃孽가我殺無罪之人고保

全平生者一自古未有라法에謀殺人為首者는

斬고下手者는絞고回而得財者는不分首從皆斬

고咀呪殺人者는斬고同居人은雖不知情이라流

三千里고用毒藥殺人者는斬고故用毒蟲咬人

致死者는 斬고 朽橋 毀船 及 深水泥潭에 故 欺人令
過渡 致死者는 絞니라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貴重함이라 남이나 내나
다르디 아니함겨늘 暴포 惡악함 사람이 或혹 지
를 貪탐호물되인함 或혹 원슈를 되인함 야어
두온 밤과 사람 업스 곳의 刁마니 殺살 害해함 야
스스로 배찰함 계교라 함니 하늘이 아래를 구
버보시 가를 刁장 부게 함시 鬼귀 神신이 거디
인노디라 早조 挽만 의 들러나 한다 殃앙 孽孽
을 넘니 罪죄 업스 사람이 죽터 주기고 平平生

칭을保보全全흔者자 1 네보티잇디아나흔니
라 **法**법에사름을씩하야주기니간모슈하나는
斬참하고손디호니는絞교호되回인하야財제
물을가진者자노모슈와조츠니를분간티말고
다斬참하고방정하야사름을주기니는斬참호
더하디사던사름은비록情정을아디못하야살
혀라도삼수천로니에귀향보내고毒독은藥
약으로배사름을주기니는斬참하고짐즈毒독
흔버러지와비얇으로배사름을물려죽게하니
는斬참하고서근드리와하야딘비파기픈물과

附 古고靈靈陳陳先生生靈仙仙居居勸勸諭諭

文문 古고靈靈陳陳先生生靈仙仙居居勸勸諭諭

야실제복령
알원글이카

為吾民者 父義 能正 母慈 兄友 能養 弟恭 敬

其子孝 能事 夫婦 有恩 貧窮 相守 為恩 若

是無 恩也 男女 有別 夫男有婦 女有 子弟 有學 能

禮義 鄉閭 有禮 歲時寒暄 皆以 恩義 往來 貧窮

患難 親戚 相救 借貸 婚姻 死喪 隣保 相

助 無惰 農業 無作 盜賊 無學 賭博 無好 爭

訟 無以 惡陵善 無以 富吞貧 行者 讓路

少長賤貴 耕者 讓畔地有畔不 班白者 一
避重去避來 耕者 讓畔地有畔不 班白者 一
 不負戴於道路子弟負重執後 則為禮義之俗矣

라리

내복성되연노이노아비노을히고어마노어
 옛비니고며듯형은스랑고아은공경하며조
 식은효도하거남진과거집이은혜이시며스나
 희와관나히큰히요미이시며부조弟비후문흙
 이이시며드은히테법이이시며가난하며어려
 온일에권당이쉬르救구하며婚혼姻인이겨삼
 수애이우지쉬르도으며티름지이로게을이말

며盜도賊적을하디말며博박가바득장으로도디스
 기를비호디말며드토와용스를즐기디말며사
 오나옴으로배어딘이를업슈이너기디말며가
 음여름으로배가난호이를의호디말며길테리
 길흥을스양흥며밭갈리고을스양흥며반만세니
 길히지며이디아니호면곳禮티義의옛풍속이
 되리라

西峙山산眞眞先선生성潭담州州주諭유俗속

文문 西峙山산眞眞先선生성 潭담州州주諭유俗속

석어린사름이니潭담州州주
 원가덕북성을알원클이라

古者教民，是以孝悌為本。其制刑，亦以不孝不悌，為先。蓋人之為人，異乎禽獸者，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詩云：父子生我，母兮鞠我。繼之曰：欲報之德，昊天罔極。此言父母之恩，與天同大。悌為人子者，雖竭其力，未足以報也。今乃有親在，而別籍異財，親老而供養多闕，親疾而救療弗力，親沒而安措弗時，不思此身，從何而有。罔極之報，當如是乎。至於兄弟，天倫也。古人謂之手足，言其本同一體也。今乃有以唇舌細故

而致爭하錐刀小利而興訟하長不恤幼하卑或凌
 尊하同氣之親이何忍為此이自今民間에有孝
 行純至友愛著聞者되來訪得實하當優加旌賞
하以為風俗之勸이或其間에有昧於禮法之人이
 為不孝不悌之行되어 鄉里父老 曲加誨諭하令
 其悔改하昔에後漢陳元이為母所訟하어 亭長仇
 香이親到其家하어 教以人倫大義하遂為孝子고
 史에清河之民이有兄弟爭財者되어 郡守蘇瓊이
 告以難得者고兄弟 易得者고田宅하어 遂感悟
 息訟하同居如初하敗常亂俗之民 王法所加라

將有不容已者此一陷刑戮則終身不齒하느雖悔
何及이리爾民은其思之야毋忽하

비뻘성그르치기를반드시효도와공순음기로
배근본을삼으며그형벌짓기도또효도아나
흥며공순아나하느나르배웃음을삼느나사름
의사름되오미증성의게서다르기노그父부子
자의惠은과얼은이며어린의義의이심으로배
너詩시에본오더클모사라란父부子를나흐시도
母모子를을기르샷다하고너어르오되德덕으
로갑고적후선한늘이그이업스샷다하느이

논父母母모은덕기하놀로터부러크기못드물
븐은디나人인子子되젓논者자비록그힘
을다응나족히배갑디못흔새시어논이제어버
이제실제가구를바로응야저물을달리응며어
버이늘그심애썩공養양이결약흐미만흐며어
버이병드르심애구의응야고티기를힘쁘디아
니응며어버이주그심애편안이못기를제배로
아니응리이쉬이몸이어디를조차잇논줄을성
과디아니응니罔망極극은덕갑디를맛당이
이러드시응라兄형弟태는天천倫윤이니삼하

거트^한라^한 빗사^한름이^한 날오^한티^한 추^한슈^한문^한족^한이라^한하^한니^한 그
본^한티^한 일^한體^한테^한과^한하^한가^한지^한라^한날^한오^한미^한어^한늘^한이^한제^한입^한
슈^한월^한이^한며^한혀^한의^한쇼^한고^한만^한연^한교^한도^한배^한드^한토^한기^한예^한니^한 큰^한
며^한송^한곳^한과^한갈^한곳^한만^한하^한자^한근^한니^한로^한송^한스^한들^한니^한르^한혀^한리^한
이^한쉬^한얼^한은^한은^한어^한린^한이^한물^한어^한옛^한비^한비^한기^한디^한아^한니^한하^한며^한
나^한즈^한니^한는^한或^한후^한노^한프^한니^한를^한업^한슈^한이^한터^한기^한니^한동^한성^한의^한
친^한흙^한이^한어^한이^한태^한마^한이^한러^한트^한시^한하^한리^한오^한이^한제^한로^한브^한티^한
民^한間^한간^한의^한孝^한호^한行^한하^한이^한그^한장^한지^한극^한하^한며^한동^한성^한스^한
랑^한하^한기^한나^한타^한나^한들^한리^한리^한잇^한거^한든^한듯^한보^한와^한실^한상^한을^한어^한
티^한맛^한당^한이^한정^한표^한하^한여^한賞^한상^한하^한를^한크^한게^한티^한어^한배^한風^한풍^한

俗속의勸 권함을삼을거시니或혹그스이에禮
례과法법을모로노사람이효도아니미공순아
닌형신을응리잇거든은일운들이구진히
근처알외여하여곰다스라고티게하라禮後후
漢한나라陳단元원이제어미할린배되여늘亭
亭長장^{이관원}仇仇구香향이친히그집의니문터入
인倫은大대義의로^{사람이엇되}고근처나드디
여孝호子子子되고北부史史스에淸淸河하박성
이元형弟테지물드도리잇거늘郡군守守슈蘇소
瓊경이범고호되엇기어려온거슨元형弟테오

엇기쉬운거소뻗과집이라후대드되여감동하
여쉬드라송스를그치고후가지로살기를취업
과그치응니뎃뎃후거슬허러브리며풍속을어
즈러이논빅성은나라법으로터올배라쟁츠파
디못호미이실하시니후번刑형裁후에싸디면
몸이못도록인수에참예디못후리니비특누우
츄들어이비즈리오디희빅성들은그성곽후야
경후이디기디말라

古人。於宗族之恩。百世不絕。蓋服屬。雖遠。
本同。血脈相通。豈容間隔。至於鄰

里鄉黨은雖比宗族為疎然其有無相資緩急
相倚患難相救疾病相扶情義所關亦
為甚重이 어今人이於此二者에往往視以為輕
小有忿爭에輒相陵犯하詞懇一起에便為敵讐
니有一于斯되라皆非義事라昔에江州陳氏累
世同居하聚族至七百餘口하前代常加旌表하至
今稱為義門하近者에吉州孫進士以惠施一鄉
로諸司一列奏하蒙恩特免文解하士夫以為美談
하今請逐處老成賢德之士하交相勸率하崇宗
族之愛하厚鄰里之歡하時節往來하恩義浹洽하

小小乖忤_를務相涵容_이不必輕啓訟端_以致結
成怨隙_이若能和協親族_也調濟里閭_也為衆論所
推_也亦當特加褒異_와如其不體教訓_也妄起訟
爭_也懲一戒百_을所不容已_니爾民_은其勉之_也毋
忽_라

넷사람이 죽친 사람이은 평에 백백 세세 라도 굿디
아니하니 服복이 며 손쉬비록 여러도 본디 조상
이온가지라 血혈脉의 이쉬르 通通하니 엇디 間
간 隔격하거를 오음하리오 이오지며 口은 혼비
록 권당의 게비기면 소하나 그러나 그이시며 업

은거슬서르조외고며緩완고며急급호직이서
 르미드며患難난에서르救구고며疾질病병
 에서르붓드느니情정義의예결린배도호고장
 重등고거노이위사름이이두가지일에잇다감
 보기를가비야이고야잠안노고야드도미이쇼
 매문득서르업슈이니거침범고야하라홍소고
 기를호번니르희매문득턱국이더원취되느니
 이에고나히이셔도다아름다운일이아니라테
 江강州주고 고을일 陳陳氏이여러덕을호덕사
 라권당모도기를七칠百백餘여口구에니르니

前代의 예뵈뵈이 旌表 표호를 더하여 제

니르히 일극라 올호가 문이라 하여 고요스 이 글길

州 주 고을 일 함 孫 손 進 進士 스 일 鄉 향 에 은

혜를 베풀음으로 배모도 마은들이 알외오니 국은

을 넘스와 각별이 文 文 解 解 히 른 免 면 제 하여 시니 파문

라 초시 스테 위 배아름다운 말을 삼나니 이 제 청 권

대 곳 마다 일은 어딘 특인 노사름이 이르 권면

하여 창솔하여 거레 사랑하기를 상하여 무을

혜를 거오물 듯기이 하여 時 시 節 절 로 往 왕 來 來 니

하여 은혜와 정의 호워 하여 고여 조고만 어지듯

논일란힘배서르함륙흥며용납흥야반드시가
비야이訟송端단을여러내여배힘원이며틈이
머자일기에닐위더마를셔니만일능히권당을
화동흥며모은흥구제흥야모든의논의추동흥
논배되면도흥맛당이각별이포장흥여말리흥
물리흥려니와만일그그러친말을테럼티아니
흥야송수흥야드도기를망녕도이니르혀면호
사름을딩티흥여빅사름을경계흥기를마더아
닐새니너희빅성들이그힘배흥야평흥이너기
디말라

泉
 眞州 眞州 眞州
 眞州 眞州 眞州
 眞州 眞州 眞州

성을 알 권
 글이라

凡為人子一孝敬是先二其次三友愛四協和兄弟

人非父母二豈有此身오父母生兒작多少艱

辛하娠將免에九死一生여乳哺三年에飲

母膏血하携持保抱에日望長成작如惜金珠하

如護性命하慈烏一反哺작猶知報恩하人

而不孝면鳥雀不若라兄弟之愛는同氣連枝니古

來取喻에名為手足하人無兄弟면如無四肢라痛

痒相關하實同一體니長當撫幼하弟當敬兄하或

值急難也尤須救助라니其次는族屬이雖有親疎
 卽論其源流也皆是骨肉이譬如大木이枝葉分披
 本同一根也氣脉未遠也豈宜相視를便若路人
 오리라其次는鄉鄰이情義亦重也患難相扶也疾病
 相救也恩義往來를亦不可闕也以上四事는人道
 大段也凡爾良民이首當加勉也家家孝友也人人
 雍和也息事省爭也安分循理也得已且已也莫妄
 興詞也一到訟庭에終身仇敵也更相報復也無有
 休期也壞產破家一多由於此也言語喧競一或
 不能無也라鄰里之間에急宜勸止也莫令交手也

致有闕傷하彼中汝拳면汝受官捧하本目小忿하
 近結深讐하何似始初에便從忍耐하飲酒無節면
 少不生災오賭博不戒면多至為盜하游手浮浪
면必困窮이勤謹服業면終是得力라違法抱
 刑이最不可作니舊來有過를各許自新하教而
 不從면刑斯無赦오有過能改면卽是善良이耆艾
 老成은宜推此意하誨爾子弟와及其鄉人하有違
 此言은衆宜誚責하以善教人면人必感動하去
 薄從厚하弭災召和하其始自今로永為樂國하

라

모릇人인子조되엿느니 효도와 공경을이문적
홀터니 그버금은友우愛의 효야 兪형 兪테 화동
홀터라 사름이 父부 母모아니시면엇다이몸이
이시리오 父부 母모아조식을나 효야 兪의 얼머슈
글리 효시니 비야 장차나 효실 제아 흠번 죽고 효
번사드시며 三삼年년을젼머기시매 어미기름
과 피를먹느니 잇글며 붓들며 관슈 효며 푸르시
매 날로 조라기를 비라야 兪금과 구슬을앗기듯
효시커 내 목숨을보 효듯 효시여 가마 피도어
미를도로머겨오히려은혜갑골을아느니 사

몸이오 구분孝호응며가마괴만기디못호디라
뉘형뉘테의사랑호오미괴운이호가지오가지
連뉘호미니테로오모로가져너극매일호응을후
슈足족이라호니사몸이뉘형뉘테업스면四
肢지업스니와기드니알프며기략오미서극관
제호야진실로一體테파호가지니어른이호
당이어리니를사랑호며아이맛당이뉘형을공
경호야或후급호며어렵기름만난편디고나모
로미구호야도를쳐나라그버금은권당이니비
복親친호며躒스호니이시나그근원과뉴패를

의논전면다아골골肉육아나비전면큰남기가
지와나히히노회여허여티시나본디흐분히큰흐
가지로하야귀운과철익이며더아나하니엇더
맛당이서르보가르문드길히사름곳리호리오
그버품은모은히니情정義의도重동호디라患
환難난의서르벗들며疾질病병의서르救구호
야恩은義의도往왕來니호기르도호호可가히闕
컬티못호호하시니이웃베일은사름의도리예큰
거시라므르너희어면백성이웃듬으로맛달이
타힘받하시니집마다孝호友우호여사름마다

화등하야 일을 보지 못도로기러너러본은편안
이더기며도라를조차시러곰말새신면도호호말
고망녕도이송스르니려혀더말라호호변 訟송庭
형의니르매몸이모도록원슈되느니라서르고
바報復복하야그칠피약이업스거시니세간
을물허보리고저을하야부리기안히일로셔말
막암스니말로들러여도도기름或혹업디못호르
디라도모은스이에셀리맛담이전하며그치게
호고히어곰손을석거사화상흥아잇기에니르
게말라타미주어피를마주면네구잇매를마즐

게시니본디자근노를인하야절근이기픈원슈
를미즈미엇디처음의문득참음만고드링스술
먹기를無우節절이하면지해나디아니리적고
博박^{바독장}카^카으로티二기를경계티아니면도적
되기에너근리만느니손을놀와浮무浪방하면
오라매반드시困곤窮궁하고브즈러니하며삼
가소업을일삼으면只참내힘을연느니라法법
을어괴롭고형벌을犯범흥이그장하영주디아
니니태앗던허물을각각스스로고티물許허하
노니근처도좃디아닐션덴형벌이이에사흥

이업슬 서화 오허물이 이셔도 능히 고린 선면 곳
 이어 다로 미니 늘근 어론 들히 맛당이 이 빛을 밀
 워여 비 주 제 弟 태 파 밋 밋 은 사 롱 을 고 르 췌 이 알
 의 어 괴 너 니 잇 거 든 모 다 맛 당 이 슈 어 려 쥬 지 스
 라 어 딜 기 로 버 사 롱 을 고 르 치 면 사 롱 이 탄 드 시
 感 動 동 호 야 薄 박 호 를 비 리 고 厚 후 호 를 조 츠
 여 지 변 이 프 러 디 게 호 고 화 괴 를 보 를 췌 시 니 그
 비 로 소 일 로 보 터 기 리 즈 게 온 나 라 이 되 리 가

泉 涇州 兪 勸 仁 孝 好 文 人 眞 眞 西 山 山 伯 山 伯 山 伯

勸 仁 孝 好 文 人

昔者^에聖人^이作孝經一書^하教人以事親之道^也
曰其紀孝行章^에曰孝子之事親也^에居則致其敬^也
啗養則致其樂^也病則致其憂^也喪則致其哀^也祭
則致其嚴^也五者備矣然後^에能事親^也
始終^이無出於此^라所謂居則致其敬者^은言子
之事親^에常須恭敬^하不得慢易^也蓋父母者^은子
之天地也^라為人而慢天地^면必有雷霆之誅^也
為子而慢父母^면必有幽明之譴^也昔^에太守侍
郎三公^이見人禮塔^하呼而告之曰汝有在家佛^이
何不供養^하蓋謂人能奉親^면即是奉佛^也若不

能奉親也雖焚香百拜也佛亦不佑也此道甚明也

幸無疑焉也所謂養則致其樂者也言子之養親

當有以順適其意也使之喜樂也也大凡年老之

人也心常歡悅則疾病必少也中懷戚戚也易損天

年也昔也老萊子也雙親也年高也常著彩衣也

為兒童戲也正以此也也今貧下之民也苟以錦

衣珍膳也以奉其親也但能隨力所有而盡其誠

心也於父母也未合也子不先嘗也父母也衣寒也

子不獨煖也父母也有怒也和顏開解也父母

有命也竭力奉承則尊者之心也快樂也

肉一盡然如春矣。所謂病則致其憂者，
言父母一有疾，是當極其憂慮也。昔人有母
病三年，是夜不解帶者，是親年是既高，是不能無疾
是人子一當躬自侍奉，是藥必先嘗，是若有名醫，是
不惜號泣懇告，是以求治療之法，是不必割指割股
而後是為孝，是至於喪祭二事，是皆當以盡誠，是
為先，是夫送終之禮，是稱家有無，是昔人所為必誠
必信者，是惟棺槨衣衾，是至為切要，是其是它繁文外
飾，是皆不必為，是至於佛家追薦之說，是固是茫昧難
知，是然是昔賢是有言，是天堂是無則已，是有

則善人一登오地獄의無則已와有則惡人의入하
하苟明此理則詣奉僧尼의廣修齋供의其為無
 益을昭然可知라又聞鄉俗의相承야親賓送奠에
 或為烹宰羊豕의酣營杯觴하當悲而樂의尤為
 非禮라經에曰孝悌之至一通於神明하天下萬
 善에孝為之本니若能勤行孝道의非惟鄉人의重
 之고官司一敬之라天地鬼神도亦將佐之와如
 其悖逆不孝의非惟鄉人의賤之고官司一治之라
 天地鬼神도亦將殛之니今請鄉黨鄰里之間에更
 相勸勉야其有不識文義者의老成賢德之士一

當與解說안使之通曉안庶幾人人이興起안家家

慕效안漸還淳古之俗안顧不羨歎안

聖人인이孝호經경호호칙을인드르샤사름

을어버이섬기노도리로버기르치샤디그孝호

行행을괴록호글에곧으샤디孝호주주의어버

이섬피매겨실제노그공경을닐위며봉양함애

노그즐김을닐위며병애노그근심을닐위며상

스애노그스늘허함을닐위며차례애노그엄숙함

을닐은일셔니다섯거시기존후에아能능히어버

이름섬김이라하시니효도의처음이려나종이

이에셔 난히 사업스 나라 본은바 저실제그공경
 을날 위다 흥은 본은 지식의 어배이 섬품을 상해
 도름이恭恭敬敬 하야 시러곰만 흥러 못흥려서
 니 父母母모노 지식의 天壤地 々 니 사됨이 되야
 天壤地 々 큰업슈이 너기면 반드시 우레의 주공
 이 잇고 지식이 되야 어배이론업슈이 너기면 반
 드시 더하와 인간외이시리니 太태守슈이
 侍지 卽卽王公공이사름이 塔塔에 절흥스료
 고블러 참고 흥야 큰오디 비접의 인노부례인
 니 잇디 공양아 니 흥다 흥니 본은 사름이 能는

히어백이론용양호면곳이부터론용양호의나
만일에능히어백이론용양티못호면비름조
향을뛰워백번절을호야도부켜진호두더야쁜
췌시니이도리쁜그미심호다라형혀도의심티
말터어다쁜온바용양호애논그즐김을닐위다
호은닐온주식이어백이론용양호기론맛당히내
그뜻을순히맛게호미이셔히여곰즐기게호미
니대대凡범호기나만호사름이무음이상해즐
거오면병이반드시적고무음이셔그프면天擘
年擘을감손호기쉬오니네스老노兼너子子

호자로 알홍 두어 버이나 리 만저 시 논 상 헤치 식

옷슬 남어 오 식으로 아롱 아 희 희 롱을 흥니 정히

일로 배니라 이 지 간 난 훈 빅 형이 진 끌 노 도 흥 옷

과 만 난 반 찬으로 배그 어 버이 를 봉 양 흥 새 지 역

조려 니 와 다 만 능 히 힘 의 인 노 바 르 조 차 그 점

형에 모 음을 다 흥야 어 부 부모 모 음 식 못 흥 여 거

지 거 든 조 식 이 몬 적 익 더 아 나 흥 여 어 부 부모 모

치 위 흥 시 거 든 조 식 이 흥 자 틈 게 아 나 흥 여 어 부

부모 모 흥 노 흥 시 미 거 시 거 든 노 빛 흥 화 히 흥

야 리 설 흥 야 플 며 어 부 부모 모 시 기 심 이 잇 거 시

든 힘을 다 하야 밧드러 하면 얼운의 마음 이 쾌쾌
樂々 하야 도장 문안히 화거 봄 그 특리라 날 온바
병에 노근 심을 날 위 다 흠은 날 온 父母 母모
병이 겨서 거 든 맛당이 그 근심과 념겨를 극진히
하 다 흠이니 리스 사 례 이어 의 병이 삼 年 年 年 年 年
밤의 셔롤 그르 디 아 니 니 이 시 니 어 버 의 나 히 임
의 노 프 시 면 能 능 히 병이 업 디 못 하 실 기 시 너 스
인 구 저 기 맛 당 이 몸 소 스 스 로 외 셔 藥 藥 藥 藥 藥 藥
시 문 쳐 맛 보 며 만 일 유 명 흠 의 원 이 잇 거 든 을 고
크 절 이 니 르 을 앗 기 디 아 니 하야 卽 治 卽 療 노 흠

法법을 청하느니라 반드시 손가락을 버리며 다리를
 떨떨은 후에孝호 1 됨이 아니라 상사와 제도
 일에너르러도 다맛당이 정형을 다함 모로써 웃
 등을 사물서니 모르送送終終함은禮례는 죽거
 든 끝

방호노
 비라 집의 이시며 업음을 상칭계호느니라 배스

사름이 반드시誠정함여 반드시信心함면 밧者
 차노오직棺관 槨과 衣의 衾금이 지극히 절실

함고 중요로 은 디라 그 다른 만함은 구와 밧그로
 삼인 거스다 굿티여 함다 아니 함거시니 불가의

退류薦薦함노 말은 중의도 혼더가게
 함구함노 일이다 진실로 사

득후고어두어알기어렵거니와그러나배어던

사름이닐오티天_堂방이 중의니르노부어디스

덴말려니와이시면어던사름이오로고地_獄

우이 중의니르노부어디스덴말려니와이시

면사오나온사름이들리라하니진실로이理_니

를분기알면중_宗파승은아텀하야위와드며지_하

야공양하기를뉘이하노가시그유익더아니흠

을뵙이가히알려라도드르니의글풍속이서르

너어권당파벗을送_송장_장을제或_혹羊_양과도

틀버혀다히며술을취하야주점하기에너로다

능니 맛당이 슬허흔디 즐겨 흥이 더욱 禮태아니
니라 經경에 이벧글
이 神신 明명을 通통 혼다하니 天천 下하의 일만
가지 어딘 일에 孝효 1 本본이 되니 말일에 能
능히 보즈러니 孝효 道도를 行행 한면 只은 사름
이 重중 히디기며 귀에서 공칭흔 뿐이 아니라 天
天 地地 鬼귀 神신 도 佐助 장축 도 으려니 와 말일
그 悖배 逆역 하야 不블 孝효 한면 只은 사름이 賤
천히 디기며 귀에서 다스릴 뿐이 아니라 天天 地地
地鬼 귀 神신 도 佐助 장축 주기 실거시니 이 제 請

청흥은 狹黨隣니 스이 예서 勸 권 勉
면 亨야 그 글의 빛을 아디 못 亨리 잇거 든어 른어
된 사람이 맛당이 티 불어 플어 브러 히여 곰알게
흥면 거의 사롬마 다 興 흥 起 起 흥며 짐마 다 본바
다 점점 순박 亨테 풍속 애도라 같거 시너도라 보
건 번아 롬답디 아니 亨라

此乃一...
 其...
 亦...
 其...
 亦...
 其...
 亦...
 其...
 亦...

訓
훈민민
歌가

父부
義의
母모
慈
不

아
바
님
날
나
흐
시
고
어
마
님
날
기
르
시
니
두
보
고
곳
아
니
시
면
이
몸
이
사
라
실
가
하
늘
고
튼
고
업
손
으
니
덕
을
어
디
다
혀
갑
스
오
리

兄
형
友
우
弟
테
恭
공

형
아
아
의
야
비
슬
을
문
져
보
아
누
손
티
라
나
과
디
양
지
조
차
고
트
스
다
흐
젓
먹
고
길
러
나
이
석
팍
고
음
은
익
디
마
라

君
君
臣
臣
신

님금과씩형과스이하늘과싸히로되내의철은은이
를다아로려으시거든우린들슬진미나리들혼라
엇더머그리

子不孝호

어버이사라신제섬길일란다응여라더나간회면
애드다엇디응리평성애고터못을이리잇셈인가
응노라

夫부婦부有우息은

흐몸들혜노화부부를삼기실샤이신제흠게늘고
주그면흐디만다어디쉬망팅의해서눈흘과려흐

누노

男男女女有別

간나히가노길흔스나히에도드시스나히테노길
흔계집이최도드시귀남진계계집아니어든일흔
못디마오려

子不弟則有學

네아들요경받디니어도록비환느니내아들쇼후
은모리면모출로다어니계이두글비화어될거든
보려노

郷黨閭里有禮

모든 사물들 한 줄은 일승자사라 사름이 되어 나셔
을티 곳 못 하 면 소를 갖 곳 팔 식 위 밤 머 기 나 다 르
라

長양 幼유 有 有序 序

골목 쥐 시 거 든 두 손 으 로 바 티 리 라 나 갈 디 거 시 거
든 막 대 들 고 조 초 리 라 향 음 주 다 파 호 후 에 외 켜 가
러 하 노 라

朋 友 友 有 有 信 信

늘 로 삼 고 등 의 벗 고 티 유 신 하 래 내 의 원 이 를 다
닐 오 러 하 노 매 라 이 몸 이 번 님 곳 아 니 면 사 름 되 미

쉬을가

貧빈窮窮憂우患患親親戚戚최相相救救

어와티죽해야 밥업시엇디흔뉘어와티아차바웃
업시엇디흔뉘미흔일다닐리소라 돌보고 쥐음노
라

婚婚姻姻死死喪喪隣隣니里里니相相助助

비접상스들흔어도룩출호손다비살쉬방은언제
나마치느손다내게도업다거니와 돌보고 쥐음노
라

無무情情타農농桑桑상

오늘도 다 새 거 다 호의 메고 가자 소라 내는 다 미여
든네 논점 미어 주마 올길 헤쌍바 다 가누에 먹쳐 보
자 소라

無우作작盜도賊죄

비록 못니 버도 느리 오슬 앓디 마라 비록 못머 거 도
느 미 법을 비디 마라 호죄 곳 베타 시 룬 휘 권고 터 짓기
어려우리

無우學호賭도博박無우好호爭爭訟訟

상뉴 장의 호디 마라 호소 그 율 호디 마라 집배야 모
슴 호며 느 미 원 슈 될 줄 엇디 나라 히 법을 헤우 사 죄

인노졸모로노다

無무以이惡악凌능善선無무以이富부吞呑

貧빈 缺결

行행者者作讓양路노耕경者者作讓양畔반 缺결

班반白백者者作不블負부戴戴

이고진티늘그니짐프러나를주오나노점엇허니

돌히라므거을가늘거드실웨라거든지물조차지

실가

右短歌十六은即 宣廟朝相臣鄭澈이為江原

監司時所作者也니蓋曰陳古靈論文中諸條야

添以君臣長幼朋友三者로使民尋常誦習於
諷詠在口則其於感發人之性情에不無所助故
附刻於此而名曰訓民歌云하

右우短단歌기 열여 스는 宣선廟묘朝도相
상臣신鄭정경濼탈이江강原원監감司스하여
실제지은거시니대개陳딘古고靈靈諭유文
문中중모든도건을되인하야셔君군臣臣신長
장幼幼유朋朋友우세가지로배티하니빅성으
로하여곰상해외와니겨음퍼입의두면그사
름의性성情정을감동하야키발케하기에도

음이업디아닌새실시여기부터사기 고일드름
을외형이르치노노래라후노라

경음민간編편終宗

...

...

...

...

...

...

...

...

...

...

請刊警民編廣布諸路答

完南府院君臣李厚源伏以臣於丙申秋忝冒禮判
嘗進 啓於 榻前曰喪亂以來人心世道日益偷
薄誠可寒心所謂警民編卽已卯名臣金正國按節
海西時所為書也其於牖民化俗之方不無少補請
以是書刊布諸路卽 賜允可而第其原本遍求不
得久乃得之於海西卽寫本也又無謬解無謬解則
窮鄉氓隸難於通曉故遂用其本校證翻譯且取陳
古靈真西山諭俗諸篇附於其下而間有節略者欲
民之易曉也偶得 宣祖朝相臣鄭澈所作訓民歌

添錄者欲使村閭婦孺尋常誦習有所感發而懲創也。會臣去職未及刊布，臣常以初旣建白不克奉行，為恨。近聞倫紀之變，或作於輦轂之下。聖上臨筵，深以導率乖方為憂歎。臣於是尤不勝感慨于中。茲敢繕寫送于南宮，倘以此遍刊於諸道，而着令按臣分付列邑，廣布民間，諄諄告諭，俾民遷善遠罪，去薄從厚，則庶幾氓俗漸變，有以仰副我殿下敦厚風俗之意矣。大抵為政之本，風化是先。必其導迪得宜，然後可使人人興起而慕效。苟或不然，而欲民化服，則何以異於止馨而求響乎。昔我世宗大王召羣

臣議所以敦孝悌厚風俗之方卞季良請廣布孝行
錄等書使閭巷小民尋常讀之使之駸駸然入於孝
悌禮義之俗迺命僕猶改撰孝行錄以進既又 申
命攸司明示教條以成仁厚之風嗚呼我朝之治莫
盛於 英廟而其所以疇咨講求者不出乎此豈不
以有國先務莫過於厚倫成俗而能致其厚倫成俗
之美者又必以盡其道率為本也哉金正國當 中
廟圖恢至治之日分憂一道首著是編懇懇誨諭者
其亦以是而臣之終始惓惓於此書必欲其梓行者
亦猶是已惟 聖主垂諒焉取 進止 戊戌月日

Blank manuscript page with vertical lines.

1811

